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숙명여자 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이 정 우

연구원 : 오 경 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Lee, Jeoung Woo*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er : Oh, Kyung Hee*

목 차

I. 서 론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2. 연구의 제한점	2. 조사도구의 선정
3. 용어의 정의	3. 조사대상
II. 이론적 배경	4. 자료수집 및 처리
1. 가정관리체계 및 행동 유형과 관련연구	IV. 조사결과 및 분석
2.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
	2. 조사결과 및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

1) to find out which variable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ie, home makers' age, level of education, duration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home makers' employment, socioeconomic status), of psychological variables(ie, family communication, the marital happi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2) to find out which variable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marital happiness.

3)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4) to find out variables which have independently significant effect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 The age of home makers and level of education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bout Affection.

b) The duration of marriage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bout Skill & Knowledge and Affection.

c) The number of children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bout Skill & Knowledge, Affection and Time.

d) The employment of home makers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bout Food.

e) Socioeconomic status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bout Physical strength.

2)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had partially significant effects on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marital happiness.

a) The age of home makers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family communication about planning & coordinating.

b) The level of education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family communication about planning, coordinating & controlling and the marital happiness.

c) The number of children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family communication about planning & coordinating and the marital happiness.

d) Socioeconomic status wa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family communication about coordinating & guiding and the marital happiness.

3)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 higher family communication & the marital happiness, the more morphostatic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4)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were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marital happines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의 고도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족크기의 변화와 기능의 축소화를 들수 있다. 부연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정의 생산기능 감소, 소비기능의 확대, 기술혁신, 가사노동의 사회화등으로 가정의 고유한

기능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으며 반면에 가족의 개인분화가 심화되어 각 개인의 정서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애정의 집단인 가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인간은 가정을 중심으로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자원의 사용과 창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과 불행 또는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인지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가정 및 사회환경적 여건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가 '행복된 삶'이라면, 우선 가정생활을 행복으로 이끌수 있는 여건의 조성 즉, 온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가정관리 행동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질과 신념을 지닌 가정관리자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자원의 활용으로 가족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너무나 급격히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도 가치관 및 인생관내지 생활관의 현저한 차이를 극복하여야 하며 가족을 중심으로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가족원의 공감대 조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조성은 가정을 원만히 이끄는데 기본 활력소가 되며 가족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가족 서로간의 이해증진과 애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행동의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가정관리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가족자원의 활용도가 달라지고 가정관리의 질(質)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가정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차원높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가정관리 행동의 거시적 차원의 문제이며, 가정 관리자가 어떤 유형의 관리행동을 지향하는가는 가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즉,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유형은 가

정의 안정과 변영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가정관리 행동의 주제인 관리자의 행동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관리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는 자아실현성 및 가치관등과의 관계 규명을 하는 몇편에 불과하다(조영희 1985; 김혜연, 문숙재 1987; 이정우, 오경희 1988).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족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사소통도, 결혼생활행복도)으로 대별하여 이들 변인증, 주요 영향변인을 알아내고자한다. 그리하여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 향상 및 가족생활의 행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제한 표집을 하여 엄격한 의미의 임의 표본추출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리행동 유형에 대한 질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 보완한 후, 예비조사와 통계방법을 적용,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측정척도의 정교성과 문항수의 제한등 신뢰도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관리 행동유형 : 가정관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한 행동형태로서, Gross등과 Beard와 Firebaugh의 분류에 준하여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① 안정지향형 : 가족환경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

하며,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므로서 가정관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또는 가정영역을 유지, 고수하려는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② 변화지향형 : 변화를 수용하는 행동형태로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를 수정, 보완하여 융통성있고 역동적인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2) 의사소통도 : 인간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언어나 비언어적 방법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결혼생활 행복도 : 결혼생활을 통하여 배우자로부터 얻은 만족감과 본인의 기대충족에서 오는 주관적인 느낌의 정도이다.

4) 관리대상 : 인간의 욕구충족의 수단이며 목표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자산 즉 자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식, 주, 지식 및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으로 국한하였다.

5) 관리과정 : 가정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단계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경자 1981 : 이정우 1982)를 토대로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체계와 관리행동 유형 및 관련연구

Maloch와 Deacon(1966)이 가정관리 연구를 함에 있어 체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이래 1970년대 이르러 가족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관리 행동이란 가족의 목표성취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창조를 통하여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Gross, Crandall과 Knoll(1980)에 의하면 가정(가족체계)은 두 하위체계 즉, 심리, 사회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며 이것을 가정환경, 근접환경, 광역환경이 둘러 싸고 있는 가정관리와 환경적 요인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체계는 그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거나 변화, 발전하는 역동성이 있다. 다시말해서 가족체계는 구성원들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변화, 발전하려는 융통성 및 개방적인 면과 가족체계를 고수하려는 보수성 및 점진적인 면이 있다(Broderick, Carlfred & James Smith 113).

국내에서 가정관리의 체계를론을 도입,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체계는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연부하며(장명욱, 1982) 여기에 가치, 목표, 기준 그리고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 가정영역안에서 하위체계의 투입과 산출의 정도에 따라 관리적 체계의 융통성 및 개방성과 보수성 및 점진성은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체계의 변화지향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반면, 후자는 안정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낸다(Beard & Firebaugh 1975). 상술하면, 관리체계의 융통성 및 개방성은 관리체계의 투입과 산출을 구성하는 일, 에너지, 정보등의 특성과 양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처해 나가기위해 구조적 적응이 필요한 반면, 관리체계의 보수성 및 점진성은 제한된 투입과 일정하게 정해진 산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변화에 서서히 적응, 대처하므로써 구조적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Beard와 Firebaugh(1975, 1978)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관리행동 유형을 안정지향형(Morphostatic pattern)과 변화지향형(Morphogenic Pattern)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차원 즉 ① 가정영역유지 ② 기준설정과 연속 ③ 현존하는 체계유지를 위한 수행 ④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등에 입각한 측정도구 개발을 한 바 있다. 즉, 안정지향적 관리행동 유형은 환경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목표지향적인 행동 유형으로 가정관리체계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정영역을 유지, 고수하려는 반면,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은 변화를 수용하는 융통성이 있고, 가정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장, 발전 및 생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긴장,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관리 체계의 붕괴 위험도 따르게 된다.

조영희(1985)는 선행연구(Beard & Firebaugh 1975, 1978)를 기초로 하여 관리행동 유형과 자아 실현도간의 관계 규명을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로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과 관리행동 유형간의 관계는 사회활동, 가사노동, 가례에 대한 가치관이 관리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

2.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선행연구¹⁾를 토대로 하여 가족환경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직업, 사회경제적지위)과 심리적변인(의사소통도, 결혼생활행복도)으로 대별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규명을 한 연구는 없으므로 의사소통도와 결혼생활행복도 각각에 대한 관련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족 환경적 변인

① 연 령 : 주부의 연령이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이정우(1978, 1980, 1982)는 연령이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장명옥의 연구(1976)에서는 3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가정관리행동 척도점수가 높았다.

한편, 관리행동유형에 관한 몇몇 연구를 살펴볼때 조영희(1985)는 연령은 금전관리 행동유형에 영향 변인이 아니며, 시간관리 및 자원관리 행동유형에 영향변인이라고 하였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에 의하면, 지식 및 기능,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이 30세미만 주부의 경우 50세이상 주부보다 변화지향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은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민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령은 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다.

② 교육수준 : 가정관리 행동은 매일매일 생활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관리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에 따라 행동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의 교육의 기회 및 년수는 가정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장명옥 1976 ; 상정기 1976 ; 이정우 1978, 1980, 1982)가 이점을 입증하였으며, 교육수준과 관리행동 및 지식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교육수준이 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힌 몇몇 연구에 의하면 조영희(1985)는 주부의 자원관리 행동유형은 대졸집단이 중·고졸집단보다 변화지향적임을 밝혔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이 학력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반면, 시간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은 학력이 낮을수록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다.

③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는 주부의 가정 관리에 대한 경험 축적기간의 장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지속년수가 가정관리지식에 영향요인임이 입증되었는바(이정우 1980), 가정생활을 통한 체험과 교육 및 환경으로부터 획득된 관리지식의 활용과 그에 대한 능력은 관리행동 및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영희(1985)는 결혼지속년수 16~20년인 주부가 11~15년인 주부보다 자원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밝혔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지식 및 기능, 시간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은 대체로 변화지향적이었다. 부언하면,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은 더욱 변화지향적인 반면에,

주1) Beard & Firebaugh(1975), 조영희(1985), 이정우, 오경희(1988)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시간에 대한 관리행동이 더욱 변화지향적이었다. 한편,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은 결혼지속년수 25년이하의 경우 변화지향을, 26년이상은 안정지향적임을 보고하였다.

④ 자녀수 :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는 주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자원으로 자녀수가 가정관리행동 및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언하면, 자녀수와 가정관리 능력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으며 자녀수가 적으면 주부의 관심이 관리능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선행연구(이정우 1978, 1982)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관리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에 의하면 자녀수가 3명이하인 주부가 4명이상인 주부보다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이 더욱 변화지향적이었다.

⑤ 직 업 : 주부의 취업은 이중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이동원 1976) 가정관리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정우 1980). 부언하면, 취업한 주부의 경우 가정내의 역할 수행상 이중역할로 인하여 그 부담이 크므로, 가정관리 성취도가 낮았다.

몇몇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여부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영희(1985)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시간 및 자원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임을 제시하였고, 이정우와 오경희의 연구(1988)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이 더욱 변화지향적인 반면, 체력에 대한 관리행동은 비취업 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었다.

⑥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 : 가정내 소득은 가족자원으로서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자원의 유용성 및 가정관리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우, 오경희 1988). 또한, 생활수준과 가정관리 능력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므로(이정우 1982) 가정내의 행동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Beard와 Firebaugh(1975)는 소득과 가정관리행동유형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조영희(1985)는 소득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이 증가할 수록 시간과 금전관리 행동이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다. 이정우, 오경희의 연구(1988)에서는 사회경제적지위가 하류층으로 갈수록 시간관리 행동이 더욱 변화지향적임을 제시하였다.

2) 심리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를 선정하여 이 영향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의사소통도 : 가정내의 의사소통 정도는 모든 생활면에서 상호관계에 작용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가정관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즉,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가정관리 체계에서 의사소통은 정보교환, 충고나 상담을 위주로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점진적이며 보수적인 가정관리 체계에서는 의사결정이나, 훈계 및 지도에 역점을 둔 의사소통을 한다(Deacon RE & Francille F 1981).

또한, 가족과 같은 소집단 성원간의 의사소통 정도는 성원간의 행동적 단위를 수반하는 의사소통 관계를 창출하는 상호 의존적인 과정이며(Deacon RE & Francille F 1981), 가족내의 일의 통솔, 지도력의 형성 및 성원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성원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가족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기 때문에 관리상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가정내의 주요한 결정을 위해 가족간의 의사소통 촉진과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통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정관리 행동은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장명욱(1976)은 중대한 가정 문제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사소한 가정관리 문제는 부인이 혼자 처리하는 과거 관리방식의 그릇됨을

시작한 바 있다. 이것은 가사치리에 대한 참여의식의 측면보다 가족간의 대화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자는 통솔자적 입장에서 가족간의 대화형성과 협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므로써 가정생활의 세반문제와 불만, 갈등해소 및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원만한 가정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Gross등이 밝힌 가정내 의사소통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① 미래를 향해 보다 향상된 가정관리를 이룩할 수 있다. ② 매일매일 가정내 일중에 발생될 수 있는 가족의 변동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③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정보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며, 성인들의 이해를 돕고 자녀들의 사회화와 훈련강화에 도움이 된다.

일면, 가정생활에 주된 대화내용을 다룬 몇몇연구(이근후, 이동원 1973; 이동원 1976; 박경자 1981)는 대화내용이 부부중심이라기 보다 자녀중심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애정생활면에서 의사소통도가 낮다고 하였다. 가정관리 과정 즉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별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된 연구(박경자 1981)에서는 평가과정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반면, 통제과정의 의사소통 정도는 높았다. 관리과정별로 관리능력 측정을 한 연구(이정우 1978, 1980)에서는 가정관리자의 통제력이 높은 반면, 평가력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족의 의사소통정도는 가정관리 행동 및 행동유형에 영향변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② 결혼생활 행복도 : 결혼생활의 행복이란 곧 결혼의 성공여부의 중요한 요소이다(Crouse B Marvin Karlins & Harold Schroder 1968, 643). Hawkins(1968, 648)는 만족과 행복은 결혼생활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며,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행복이 혼존하는 생활속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상태를 행복으로 규정하고 있다(Hawkins 1969, 109) 그러므로, 생활을 통하여 어떤 만족과

충족에서 오는 즐거움의 상태를 행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생활 행복도란, 결혼생활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본인의 기대충족에서 오는 주관적인 느낌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만족감과 기대에 대한 충족감이 클수록 결혼생활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생활의 성공여부는 결혼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Lewis와 Spanier(1979, 269)에 의하면,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올바른 판단, 의사소통, 결혼생활 행복도 및 만족도등이 깊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만족 및 행복도는 결혼생활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최연실(1987)과 Lewis와 Spanier(1982)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다른 몇몇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클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해도가 높았으며(이정순 1982)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행복도가 높았다(박경자 1981). 또한 가정생활 행복도는 가정관리 능력과 정적상관이 있었고(한상순 1978)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 지식이 많았다(이정우 1980). 그리고 결혼생활 만족도와 가정관리 행동간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이정우 1982)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이해도가 클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Ater EC & Ruth ED 1972).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주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만족할 경우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태도로서 많은 관리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창조를 하며 가족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관리행동 및 행동유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족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 변

인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를 알아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관리 행동 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가족환경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직업,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다.

〈연구문제 2〉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행복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의사소통정도는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다.

〈가설 2-2〉 결혼생활 행복도는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다.

〈연구문제 3〉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심리적 변인(의사소통도, 결혼생활행복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3-1〉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의사소통 정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것이다.

〈가설 3-2〉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결혼생활 행복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련된 영향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에서의 연구문제를 도식화하면 〈표1〉과 같다.

2. 조사도구의 선정

1) 가정관리 행동유형 측정도구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에서 사용한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은 5점척도의 총 16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1점에 가까울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낸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69로 비교적 높은편이었다.

2) 의사소통도 측정도구

가정생활에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박경자 1981)를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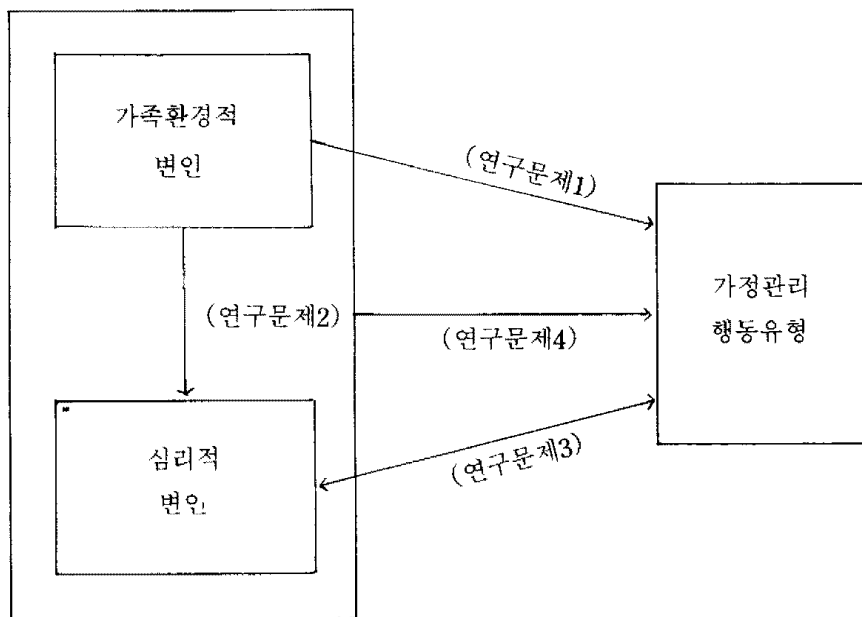


표 1. 연구 모델.

보완하여 관리과성 측,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에 따라 5가지의 관리대상 즉, 의, 식, 주, 가정경제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은 5점척도의 총25문항으로 의사소통정도의 평균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의사소통 정도가 높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의사소통정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9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결혼생활 행복도 측정도구

도시 주부의 결혼생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Roach AJ, LP Frazier & SR Bowdern 1981)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10개문항을 발췌하여 5점척도를 시도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생활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84로 매우 높은편이었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동대문구 강남구, 관악구, 종로구, 성북구를 중심으로 각 3개 洞으로 분산, 배포하였고 주부의 연령차이를 감안하여 임의 배포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2월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월말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400부를 배포하였으나 292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기재미비로 22부를 제외한 270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t-test, F-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심리적변인 즉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간에 관계는 적률상관계수 r을 구하였고, 가정관리 행동유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N	%	구 분		N	%
연령	35세 이하	79	29.70	교육	중졸이하	50	18.59
	36세~45세	128	48.12		고 졸	108	40.15
	46세이하	59	22.18		대졸이상	111	41.26
	합 계	266	100.00		합 계	269	100.00
결혼 지 속 년 수	5년이하	27	10.00	자 녀 수	없다	10	3.72
	6~10년	54	20.00		1명	38	14.13
	11~15년	59	21.85		2명	104	38.66
	16~20년	65	24.07		3명	82	30.48
	21~25년	41	15.18		4명이상	35	13.01
	26년이상	24	8.89		합 계	269	100.00
	합 계	270	99.99	S E S	下	65	24.62
직 업	유	57	21.19		中	128	48.48
	무	212	78.81		上	71	26.89
	합 계	269	100.00		합 계	264	99.99

*N의 합계 수치가 다른것은 Missing Data 때문임

표 3.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 경향

관리행동유형 (관리대상)	Mean	S.D.	Min.	Max.
의	3.95	0.74	1.00	5.00
식	3.37	0.99	1.00	5.00
주	3.05	0.89	1.00	5.00
지식·기능	3.51	0.90	1.00	5.00
체력	4.04	0.79	1.00	5.00
애정	3.54	0.89	1.50	5.00
금전	2.88	0.81	1.00	5.00
시간	2.95	0.72	1.00	4.50
Total	3.41	0.43	1.69	4.69

형에 관련된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0~40대 주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졸이하가 18.59%, 대졸이상 41.26%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편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중류가정이 48.48%로 제일 많았다. 결혼지속년수는 5년이하(10%)와 26년이상(8.89%)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자녀수가 2명인 가정(38.66%)과 3명(30.48%)인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부가 취업한 가정(21.19%)보다 취업하지 않은 가정(78.80%)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및 분석

1) 가정관리 행동유형

본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평균점수로 비교한 결과, 총평균 3.41로서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표 3 참조).

관리대상별로 살펴보면 금전(2.88), 시간(2.96)을 제외한 6가지 대상은 안정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와 비교해 볼때 시간과 금전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인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나, 지식 및 기능,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은 상반된 결과였다.

2)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가족환경적 변인 :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test,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 연령별 :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5$). 즉,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었는데 35세이하의 주부가 46세이상의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은 더욱 안정지향적이었다($p < .001$).

㉡ 교육수준별 : 주부의 교육수준별 관리행동유형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대상별로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1$). 즉 대체로 안정지향을 하는 편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이 더욱 안정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지속년수별 :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관리행동 유형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대상별로 지식 및 기능($p < .05$)과 애정($p < .001$)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안정지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는 결혼지속년수 5년이하인 주부가 6~15년인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에 대해서는 5년이하인 주부가 21년이상인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정경영의 경험을 쌓을 수

표 4. 가족환경적 변인별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족 환경적 변인	관리행동유형 (관리대상)		의		식		주		가능 및 지식		채력		애정		공전		시간		Total	
	연령	인원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연령	35세이하	79	3.93		3.45		3.19		3.54	AB	4.03		3.88	A	2.97	A	2.99		3.50	A
	36세~45세	128	3.96		3.34		2.96		3.39	B	4.03		3.48	B	2.88	A,B	2.96		3.38	A,B
	46세이상	59	3.95		3.28		2.98		3.71	A	4.05		3.15	C	2.70	B	2.83		3.33	B
	계 및 F	266	0.03	0.58	0.58		1.73		2.58		0.01		12.75***		1.96		1.00		3.20*	
교육	중졸이하	50	3.85		3.36		3.05		3.50		3.95		3.19	B	2.97		2.81		3.33	
	고 졸	108	3.86		3.32		3.00		3.54	A	4.02		3.54	A	2.88		2.94		3.39	
	대졸이상	111	4.07		3.42		3.09		3.47	A	4.09		3.69	A	2.84		3.03		3.46	
	계 및 F	269	2.69	0.28	0.28		0.28		0.14		0.65		5.71**		0.40		1.71		1.93	
결혼 지속 년 수	5년이하	27	4.03		3.18		3.25		3.90	A	4.18		4.11	A	2.94	AB	2.98		3.57	A
	6~10년	54	3.88		3.50		3.14		3.45	B	3.85		3.78	AB	2.89	AB	2.97		3.43	AB
	11~15년	59	3.94		3.57		2.99		3.22	B	4.10		3.52	BC	3.03	A	3.13		3.44	AB
	16~20년	65	3.93		3.14		2.93		3.55	AB	4.00		3.43	BC	2.83	AB	2.87		3.34	B
	21~25년	41	4.06		3.34		2.92		3.63	AB	4.17		3.18	C	2.82	AB	2.87		3.37	AB
	26년이상	24	3.85		3.41		3.22		3.56	AB	4.02		3.25	C	2.60	B	2.81		3.34	B
	계 및 F	270	0.44	1.58	1.58		1.06		2.52*		1.12		5.49***		1.10		1.19		1.42	
	없나	10	4.25		3.60		3.20		4.30	A	4.25		4.25	A	3.30		2.80		3.74	A
자녀 수	1명	38	3.97		3.35		3.09		3.72	B	4.10		3.89	AB	2.88		2.96		3.49	B
	2명	104	3.90		3.43		3.04		3.32	B	3.90		3.71	BC	2.84		3.14		3.11	B
	3명	82	3.98		3.28		3.01		3.54	B	4.15		3.15	D	2.89		2.82		3.35	B
	4명이상	35	3.85		3.27		3.04		3.58	B	4.02		3.32	CD	2.85		2.77		3.43	B
계 및 F	269	0.69	0.47	0.47		0.12		3.87**		1.42		9.45***		0.73		3.25*		2.49*		
직업	유	57	3.79		3.13		3.01		3.42		3.93		3.60		2.82		2.84		3.32	
	무	212	3.98		3.42		3.05		3.54		4.06		3.51		2.89		2.99		3.43	
	계 및 t	269	1.72	2.17*	2.17*		0.30		0.90		1.05		0.64		0.61		1.31		1.76	
SES	下	65	3.90		3.47		3.16		3.56		3.98	B	3.33	B	2.97		2.80	B	3.39	
	中	128	3.96		3.30		2.96		3.45		3.95	B	3.55	AB	2.85		2.98	AB	3.38	
	上	71	4.00		3.40		3.12		3.60		4.23	A	3.73	A	2.86		3.09	A	3.50	
계 및 F	264	0.32	0.68	0.68		1.31		0.72		3.09*		3.51*		0.50		2.89		2.16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있다는 기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결혼지속년수가 짧은 신혼주부의 경우 가정생활의 변화를 서서히 시도, 적응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난것은 조사대상 집단이 다른점과 주부의 가치관의 차이등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㉔ 자녀수별 : 자녀수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5$).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주부가 자녀를 1명이상 둔 가정의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별로 지식 및 기능($p < .01$), 애정($p < .001$) 그리고 시간($p < .05$)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지식 및 기능과 애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지향을 하는 반면,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는 가정에 비해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더욱 안정지향적이었고, 애정에 대해서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자녀가 3명인 가정에 비해 더욱 안정지향을 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와 상반되는 경향이다. 또한 시간에 대해서는 자녀가 4명이상인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 더욱 변화지향적 관리행동 유형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㉕ 직 업 :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관리대상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식생활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 < .05$) 대체로 식생활에 대해 안정지향을 하는 편이며 비취업 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더욱 안정지향적이었다. 이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관리대상은 다르나, 조영희(1985), 이정우와 오경희(198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경향이다.

㉖ 사회경제적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관리행동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대상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체력($p < .05$)과 애정($p < .05$)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이 유의적인

표 5. 두 심리변인의 일반적경향

심리변인		Mean	S.D	Min.	Mix.
의	계획	3.80	0.66	1.60	5.00
사	조정	3.65	0.69	1.40	5.00
소	통제	3.96	0.61	2.00	5.00
통	지도	3.72	0.71	1.00	5.00
도	평가	3.62	0.72	1.00	5.00
Total		3.75	0.57	1.96	5.00
결혼생활행복도		3.60	0.67	1.00	5.00

차이가 있었다. 즉 체력과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 유형은 대체로 안정지향적이며 특히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계층의 가정일수록 가정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므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서서히 유도하고 적응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가족환경적 변인중 연령과 자녀수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② 심리적 변인

㉑ 의사소통도 :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간의 의사소통 정도는 총평균 3.75로 비교적 원활한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p < .05$), 교육($p < .01$), 결혼지속년수($p < .05$), 자녀수($p < .05$), 사회경제적 지위($p < .01$) 등이었다(표 6 참조). 상술하면 주부의 연령에 따라 계획($p < .001$), 조정($p < .001$)면에서 의사소통정도가 원활하였다. 이는 연령이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송말희(1986), Wheeler(1971)의 연구와 일치하며, 박경자(1981), 이정순(1982)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주부의 학력은 계획($p < .01$), 조정($p < .001$), 통제($p < .01$)면에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학력이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이정순(1982), 송말희(1986), 원효종(1983), 이정연(1987), Wheeler(197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김은숙(1983), 박경자(198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표 6. 가족환경 변인별 의사소통 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

가족환경 적 변인	심리변인										결혼생활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		Total		행복도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연령	79	A	3.85	A	4.07		3.83		3.72		3.89	A	3.76	A
	128	B	3.66	A	3.94		3.66		3.58		3.73	AB	3.57	AB
	59	C	3.39	B	3.93		3.70		3.60		3.64	B	3.46	B
교육	266	7.67***	7.71***	1.28		1.54		1.01		3.94*		3.68*		
	50	B	3.32	B	3.78	B	3.62		3.57	B	3.57	B	3.35	B
	108	A	3.68	A	3.91	AB	3.64		3.58	AB	3.72	AB	3.56	A
결혼지속년수	111	A	3.78	A	4.09	A	3.84		3.67	A	3.87	A	3.75	A
	269	6.66**	8.05***	5.39**		2.80		0.51		5.23**		6.81**		
	27	A	3.96	A	4.14	A	3.90		3.66	A	3.97	A	3.97	A
자녀수	54	B	3.70	BAC	3.89	AB	3.71		3.64	AB	3.76	AB	3.58	B
	59	B	3.80	BA	4.10	AB	3.85		3.75	A	3.87	A	3.64	B
	65	B	3.58	BC	3.93	AB	3.64		3.56	AB	3.71	AB	3.54	B
각업	41	BC	3.39	C	3.82	B	3.59		3.48	B	3.57	B	3.51	B
	24	C	3.44	C	3.91	AB	3.60		3.55	B	3.59	B	3.42	B
	270	4.60***	3.58**	1.75		1.33		0.85		2.65*		2.40*		
S	10	A	3.90	A	4.12		3.96		3.66	A	3.96	A	4.01	A
	38	A	3.93	A	4.08		3.97		3.87	A	4.00	A	3.84	AB
	104	AB	3.68	AB	3.96		3.67		3.56	AB	3.74	AB	3.53	BC
E	82	B	3.54	AB	3.91		3.68		3.59	AB	3.69	AB	3.57	BC
	35	B	3.43	B	3.94		3.62		3.59	B	3.62	B	3.46	C
	269	5.28***	3.39**	0.66		1.93		1.46		2.92*		2.96*		
S	57	3.68	3.55	3.86		3.63		3.55		3.65		3.56		
	212	3.83	3.68	3.99		3.75		3.64		3.78		3.61		
	269	1.47	1.13	1.30		1.05		0.80		1.34		0.52		
S	65	B	3.48	B	3.76	B	3.65	B	3.50	B	3.62	B	3.27	C
	128	AB	3.66	AB	3.94	B	3.64	AB	3.60	AB	3.73	B	3.58	B
	71	A	3.80	A	4.20	A	3.93	A	3.78	A	3.93	A	3.89	A
264	2.08	3.80*	9.02***		4.32*		2.74		5.47**		16.56***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주부의 결혼지속년수는 계획(p<.001), 조정(p<.01)면에서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결혼지속년수가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원효중 1983; 김은숙 1983; 이정우, 안동선 1984; 송말희 1986; 이정우, 장병욱 198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가정내의 자녀수는 계획(p<.001), 조정(p<.01)면에서 자녀가 1명이하인 가정이 4명이상인 가정보다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잘되고 있었다. 이는 송말희(198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며, 자녀수가 의사소통의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이정우, 안동선(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 박경자의 연구(1981)결과와는 상반된다.

사회경제적지위는 상류층으로 갈수록 조정(p<.05), 통제(p<.05), 면에서 의사소통정도가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이정순 1982; 원효중 1983; 이정우, 안동선 1984; 송말희 1986; 최연실1987)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김은숙의 연구(1983) 결과와는 상반되는 점이다.

④ 결혼생활 행복도: 결혼생활 행복도는 총평균 3.60으로 행복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결혼생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p<.05), 교육(p<.01), 결혼지속년수(p<.05), 자녀수(p<.05), 사회경제적지위(p<.001)를 들 수 있다(표 6 참조). 상술하면, 결혼생활은 대체로 행복한 편인데 46세이상의 주부보다 35세이하의 주부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행복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ssie Bernard(1966)와 유영주(1977), 최연실(1987)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결혼지속년수 5년이하인 주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생활 행복도가 더 높았다. 이는 이효재, 정충량(1970), 최재석(1970)의 연구결과와 Burr(1970), Rollins와 Feldman(1970)의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며 결혼지속년수가 결혼만족도에 영향

표 7.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심리변인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관리 행동유형									
			의	식	주	지식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	Total	
심 리 변 인	의 사 소 통 도	계획	** 0.18	*** 0.24	*** 0.28	*** 0.32	** 0.18	*** 0.34	* 0.15	** 0.16	*** 0.46	
		조정	** 0.17	*** 0.26	** 0.15	*** 0.22	* 0.15	*** 0.39		*** 0.30	*** 0.43	
		통제	** 0.19	* 0.14		*** 0.22	*** 0.21	*** 0.21			-0.04 0.10	*** 0.28
		지도	** 0.17	*** 0.30	** 0.16	** 0.16		*** 0.32			*** 0.21	*** 0.37
		평가	* 0.12	*** 0.30	** 0.19	** 0.19		*** 0.28			** 0.16	*** 0.36
		Total	** 0.20	*** 0.30	*** 0.21	*** 0.26	** 0.17	*** 0.37			*** 0.23	*** 0.46
	결혼생활 행복도	*** 0.21	* 0.13	* 0.13	** 0.15	** 0.16	*** 0.36			** 0.17	*** 0.34	

P<.05*

P<.01**

P<.001***

표 8.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F	R ²
의사소통도	b: 0.37*** a: (0.28)	*** 21.90	0.25
결혼생활 행복도	0.21*** (0.14)		
연 령	0.01 (0.00)		
자녀수	-0.06 (-0.02)		

b : 표준화된계수(β) P<.001***

a : 비표준화된계수

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유영주(1979), 이옥진의 연구(1963) 결과와는 상반되는 경향이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의 주부는 자녀 4명이상인 가정주부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오명숙(1978), 이옥진(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경제적지위가 상류층으로 갈수록 결혼생활 행복도는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는 직업을 제외한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므로 가설 2-1과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심리변인간의 관계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심리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생활에서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간에는 대체로 중위정도의 정적상관관계($r=0.46, p<.001$)를 나타내었고, 결혼생활 행복도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간에는 낮은 정적상관관계($r=0.34, p<.001$)가 있었다. 즉, 의사소통정도가 높고 결혼생활 행복도가 클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가 원활하며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부일수록 목표지향적이고 수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경향이다. 다시말해서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하므로서 많은 정보 및 지식의 상호교환과 획득을 하여 가정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목표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추측되며 가정내 목표를 달성하므로서 가족간의 욕구충족에 따른 만족도의 증대와 더불어 결혼생활 행복도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간에 일부 관리대상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3-1 과 가설 3-2 는 모두 긍정되었다. 따라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된다.

4)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영향

가족환경적 변인중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유의적 차이를 보인 변인인 연령과 자녀수 그리고 심리적 변인인 의사소통도와 결혼생활 행복도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의사소통도($\beta=0.37$)와 결혼생활 행복도($\beta=0.21$)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었다($p<.001, R^2=0.25$). 따라서, 가족환경적 변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족환경적 변인이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향상과 가정생활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적 변인중 가정관리 행동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p < .05$)과 자녀수($p < .05$)이었다.

2) 가족환경적 변인중 심리적 변인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직업을 제외한 연령($p < .05$), 교육수준($p < .01$), 결혼지속년수($p < .05$), 자녀수($p < .05$), 사회경제적 지위($p < .01$; $p < .001$)이었다.

3)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간에는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r = 0.46$, $p < .001$; $r = 0.34$, $p < .001$).

4)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도($\beta = 0.37$)와 결혼생활 행복도($\beta = 0.21$)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 및 결혼생활 행복도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유의미한 영향변인이었고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가 높고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을수록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족성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려는 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언하면,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은 목표지향적이고, 가정영역을 고수하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서히 적응, 변화하려는 관리행동 유형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교환되고 획득된 정보나 지식으로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가정생활의 안정과 변영을 이룩함으로써 결혼생활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으며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았고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성원이 만족도가 증진되므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언하면, 이러한 경향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가 가정관리 능력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국가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행복도 증진을 위해 자녀수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이정우, 오경희 1988)에서 언급되었던 바와같이 보다 많은 가족자원과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융통성이 있는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 유형을 통해서도 가정생활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실정에 맞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척도제작이 세분화되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보다 포괄적인 관리대상에 대한 관리과정별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지방도시 및 농, 어촌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및 도시 주부와 비교연구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숙: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 논문집 10, 자연예능학편, 1982
- 2) 김은숙: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사대 석사논문, 1983
- 3) 김혜선: 결혼 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대석사 논문, 1982
- 4) 박경자: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81
- 5) 상정기: 가정관리능력과 학력과의 상대적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부산교대 논문집 12(2): 1976
- 6) 서동인: 취업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석사논문, 1985
- 7) 송말희: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대석사논문, 1986

- 8) 오명숙 : 결혼 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연구, 이대석사논문, 1978
- 9) 유은희 : 한국 도시부인의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74
- 10) 유영주 :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4, 1979
- 11) 윤명희·임정빈 : 도시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985
- 12) 이근후·이동원 : 도시가족내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2, 1973
- 13) 이기숙 :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 논문집 17, 1984
- 14) 이동원 : 직업 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27, 1976
- 15) 이정우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숙대논문집, 1978
- 16) 이정우 : 가족 환경적 요인이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22, 1982
- 17) 이정우 : 전문직여성의 가족관계관, 아세아여성연구 13, 1974
- 18) 이정우 :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대박사학위 논문, 1980
- 19) 이정우·안동선 :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II), 아세아여성연구 23, 1984
- 20) 이정우·안동선 : 도시주부의 여가유형이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1983
- 21) 이정우·안동선 :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2, 1983
- 22) 이정우·오경희 :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생활과학연구소) 2, 1988
- 23) 이정우·장병옥 :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6, 1987
- 24) 이정순 :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연구 (일지모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대석사논문, 1982
- 25) 이성연 :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987
- 26) 이옥진 :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적 변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82
- 27) 원효중 :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불안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83
- 28) 장명옥 :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2
- 29) 장명옥 : 가정관리학 연구, 회갑논문집, 1976
- 30) 조영희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논문, 1985
- 31) 정충량·이효재 : 도시 주부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중류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16, 1970
- 32) 최연실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87
- 33) 최재석 : 한국 도시가족의 기능, 아세아여성연구(숙대)9, 1970
- 34) Ater EC & Deacon RE : *Inter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ies and Managerial Componen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4 May, 1972
- 35) Adams BN :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Rand McNally Publishing Co.*, 1980
- 36) Beard DM : *Morpho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Ph. D*, 1975
- 37) Beard DM & Francille MF : *Morpho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Mar., 1978
- 38) Broderick C & Smith J :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ed*, *Burr WR, RR Hill, FI*

- Nye & IL Reiss(*The Free Press, 1979*) : 112-128
- 39) Burke RJ & Weir T :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May, 1976*
- 40) Burr WR, et al : *Symbolic Interaction &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ed. Burr Wr, RR Hill, FI Nye & IL Reiss (The Free Press, 1979) 42-111*
- 41) Calvin KM :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 Company, 1982*
- 42) Centers R, Raven BH & Rodrigues A : *Conjugal Power Structure : A Reexa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April, 1971*
- 43) Crouse B, Marvin K & Harold S : *Conceptual Complexity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Nov., 1968*
- 44) Davidson B, Balswick & Halverson C : *The Relation Between Spousal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June, 1983*
- 45) Deacon RE & Francille MF :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 and Application. Allyn and Bacon, Inc., 1981*
- 46) Francille MF & Deacon RE : *Proposed Framework For Home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1966*
- 47)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Inc., 1980*
- 48) Hicks MW & Platt M :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Nov., 1970*
- 49) Hawkins JL & Johnson K : *Perception of Behavioral Conformity of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1 (3) : 1969*
- 50) Jessie Bearnard : *Marital Stability and Patterns of Status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Nov., 1966*
- 51) Kemper JD :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ibling of Husband and the Wif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25(2) : 1966*
- 52) Lewis RA & Spanier GB :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The Free press, 1979) : 268-294*
- 53) Miller BC :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6(4) : 1976*
- 54) Nickell P, Rice AS & Tucker SP : *Management in Family Living. John Wiley & Sons, Inc., 1976*
- 55) Raush HL, Greif C & Nugent J : *Communic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Family 1ed. Burr, WR, et al(The Free Press, 1979) 468-489*
- 56) Roach AJ, Frazier LP & Sharon R, Bowden SR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Aug., 1981*
- 57) Rollins BC & Feldman H :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2(Feb), 1970*
- 58) Wheeler SM : *Communication Behavior and Task Collaboration In Families of Low Socio Economic Level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1971*